

남한산성, 아름다움이 나를..., 천사는 여기..., 전기수 이야기 등
<대산문학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늦가을 책 골라 읽는 재미 '솔솔'



침체된 서점가 각종 문학상 수상작 풍성 한 번 검증된 작품 독자들 선택도 쉬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수식이 조금은 어색한 시대가 돼버렸다. 인터넷과 영상 매체가 종이 매체를 잠식하는 현실이 현대인의 독서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의 종말을 고하기엔 아직 이르다.

문학평론가 이명원씨는 최근 '기회회의' 210호에서 '중견(작가)의 '활력'과 청년(작가)의 '명량'이란 글로 2007년 한국 소설을 진단했다. 소설가 황석영씨는 "신인에서 중견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 문학을 부흥시킬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독자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읽으란 말이고, 이번 가을을 책과 함께 보내고 싶은 독자라면 우선 문학상 수상작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다. 최근엔 새 문학상들도 속속 제정돼 문단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들 문학상 수상작은 전문가가 작품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다. 올 가을 문학상 수상작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을 살려보자.

▲모음집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77년 소설가 이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상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은 전경린의 '천사는 여기 머문다'(문학사상사). "가정 폭력과 애정 갈등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압축과 이완의 서사 기법으로 하나의 소설 미학을 확립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수상작 외에 공선옥, 한창훈, 김연수, 권여선, 천영영, 편혜영, 김애란의 작품도 함께 실렸다.

올해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박민규의 '누런 강 배 한 척'(해토)은 "노년의 묵중하고 허허로운 시선을 잘 빚어낸 작품"이라는 평가다. 1994년 제정된 이수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은 윤성희의 '하다 만 말'(홍영사). 시는 손택수의 시집 '묵련전차'(창비)가 받았다. 작품집에는 정찬, 김경옥, 조정래 등 본심에 오른 7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1955년 제정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현대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은 소설 부문 이승우의 '전기수 이야기'와 시 부문 최정래의 '그녀의 입술은 따스하고 당신의 것은 차가워' (이상 현대문학)이다. 소설집에는 김종

혁, 전성태, 한강 등 수상후보자 외에 박완서, 이동하 등 역대 수상자 최근작도 포함됐다. 황순원문학상 수상작은 김연수의 '달로 간 코미디언'(중앙북스)이다.

▲단행본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학고재)은 올해 대산문학상 수상으로 대중적 인기와 함께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이명원씨는 '남한산성'에 대해 "오늘날 대중의 집단무의식과 정체성의 위기,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위험사회의 악몽과 불안을 예민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5년 제정된 동인문학상의 올해 수상작은 은희경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창비). 이 작품이 실린 소설집에는 중·단편 5편이 함께 실려 있다.

남과 간첩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김영하의 장편소설 '빛의 제국'(문학동네)은 올해 단해문학상 수상작이다. 고료 1억원으로 제정 당시 주목을 받은 세계문학상의 올해 주인공은 신경진의 '솔밭'(문이당). 도박과 여자를 소재로 자본주의 사회의 불확정 속에 사는 현대인을 그렸다.

오늘의 작가상은 이 홍의 '컬프렌즈'(민음사)가 받았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세 명의 여자 이야기를 다뤘다. 이 밖에 문학동네작가상과 문학동네소설상을 받은 정한아의 '달의 바다'와 김연수의 '캐비닛'(이상 문학동네)도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죽간에 새긴 '면앙정 30영'

서각작가 조정숙 작품전 15~21일 대동갤러리

서각작가 '효천(曉泉)' 조정숙 작품전이 15~21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열린다.

조씨는 '침실에서 녹죽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임역령 선생의 '면앙정 30영(詠)'을 죽간(竹簡)에 새긴 작품을 선보인다. '면앙정 30영'은 조선 명종 때의 문신 임역령 선생이 면앙정의 절경을 읊은 연작이다.



'면앙정 30영'

그는 단순히 글씨를 나무판에 옮기는 기존 작업에서 탈피, 태화를 주제로 채택한 '비천주악도'를 통해 전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목판에 채색을 가미한 '연성자결' '어락' '부작' 등 작품은 전각의 색다른 조형세계를 맛보게 하고 있다. 일본각자협회초대제, 동아시아필묵정신전, 한·일 국제서도협회교류전 등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자문위원, 광주무등서각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2-003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성심은 가야금 독주회 14일 문예회관 소극장

성심은(전남대 국악과 교수·사진) 가야금 독주회가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성 교수는 대학교 시절 은사로 지난 2003년 타계한 작곡가 이상천 선생의 곡만을 묶어 들려준다.



연주곡목은 초연곡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3편의 노래'를 비롯, '세령산' '살고지다리' '두 음을 위한 오현금' '환상적 소곡' 등이다. 서담, 김경희, 김미진, 전성옥, 양신숙, 이정수 씨가 함께 출연한다.

서울대 국악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성 교수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며 빛고을무용가아카데미연주대 대표, 광주시·전남도 문화재위원을 맡고 있다.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社告

문화수도 스토리텔링 세미나

16일 오후 2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세미나실

광주일보사는 (재)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방송, 캐릭터, 모바일 등에 '이야기'를 얹어 새로운 문화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잠재력을 키우는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애니메이션과 게임, 공간(장소)의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스토리텔링에 관심 있는 문화콘텐츠 업계 실무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2007년 11월 16일(금) 오후 2시~6시
- ▲장 소=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세미나실
- ▲사 회=김병인(전남대 사학과 교수)
- ▲주제발표=박기수(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해원(계원조형예술대 멀티미디어 디자인과 교수), 한창원(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문 의=(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2-350-2448

주최: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주관: 光. 報 日 報 社,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담양 소쇄원·보길도 윤선도 원림 명승으로 이름 바꾼다

문화재청, 명칭 재분류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히는 '담양 소쇄원'과 '보길도 윤선도 원림'이 사적에서 명승으로 이름이 바뀐다.

문화재청은 13일 "소쇄원을 비롯해 보길도 윤선도 원림, 남원 광한루원, 서울 성북동 성락원, 서울 부암동 백석동원 등 사적으로 지정된 정원 문화재 5곳을 명승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지정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들 정원 유적의 명칭을 명승으로 재분류했다.

담양 소쇄원은 북쪽 장원봉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따라 정자, 담장, 화단, 연못 등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했으며 선조들의 정원 조성관을 잘 보여준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고산 윤선도가 13년 간 머물던 곳으로 보길도



담양 소쇄원 광풍각.

천혜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해 정원 조성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된다.

남원 광한루원은 누각과 정자 등 인공시설물이 연못, 주변 수목 등 정원 요소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돼 매년 단오절 춘향제가 거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입 단원 모집합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곡목은 지정곡 '고향의 봄'과 자유곡 1곡이다.

실기 전형은 오는 24일 오전10시 광주문예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단원에게는 단복과 간식, 정기연주회 공연수당을 지급하며 연습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문의 062-529-1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리드옥스

장고형 대망족

장류혜는 90~100여개

TEL: 382-4500 | 11-307-1188

모아 상용기수용바퀴 유동보 바퀴

다 서운 남, 남프프가기

TEL: 382-4500 | 11-307-1188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등록부담금, 내수유류대비용, 1년보증

TEL: 382-4500 | 11-307-1188

(주)올건부동산 리서치

우수한서비스, 전문조사팀

TEL: 382-4500 | 11-307-1188

부동산 판매 전문회사

부동산 전문조사팀

TEL: 382-4500 | 11-307-1188